



성모의 노래

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
나를 구하신 하느님께
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
당신 종의 비천함을
돌보셨음 이로다.

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
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
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
하셨음 이요 그 이름은
“거룩하신 분”이시로다.

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
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
미치시리라.

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
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
자들을 흠으셨도다.

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
내치시고 미천한 이를
끌어 올리셨도다. 주리는
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
부요한 자를 빈손으로
보내셨도다.

자비하심을 아니
잊으시어 당신 종
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
이미 아브라함과
그 후손을 위하여
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
언약하신 바로다.

+ 아멘